

축 사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는 갑오년, 이른바 갑오농민전쟁이라 부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 그리고 반부패의 기치 아래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를 변혁하려 했던 민초들의 항쟁이었습니다.

19세기말 우리 국토는 제국주의의 확장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었음에도 국가 기강은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 있었고, 민중들은 부패와 타락에 물든 병폐에 직접적인 희생자로서 온갖 수탈과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동학의 가르침은 신음하던 민중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 그 빛 아래 모이게 하였고, 마침내는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만민 평등의 가르침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이러한 평등의 사상은 백성들로 하여금 조선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눈뜨게 하였고 마침내 혁신을 위한 깃발을 들게 하였습니다. 관군과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뿌리까지 썩은 봉건적 사회 질서와 외세의 침략에 맞섰던 우리 민중의 각성이었으며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0년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사회가 사람이 하늘인 사회가 아니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양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여 아직도 힘써 노력중이며, 사람의 존엄보다 자본이 우선하는 물질주의는 우리의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천도교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물질과 배금주의의 득세로 인성의 존엄이 본의와 다르게 등한시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늘로 대우받는 확고한 정신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내 마음에 한울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말씀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

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서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큰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제인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시대 인성의 존엄과 정신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책무이자 화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20년 전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고, 민족의 공존과 번영,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학술대회, 그리고 문화제와 남북공동행사 등 성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천도교 박남수 교령님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님, 그리고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김석태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신 혁명의 길에 함께 나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1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자승